

전북교육청, '2024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공모 시상식

'소중한 너와 나, 모두의 인권'

인권챌린지·카드뉴스·이모티콘·시 등 4개부문 42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2024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공모전은 4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소중한 너와 나, 모두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챌린지, 카드뉴스, 이모티콘, 시 등 4개 분야로 진행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각 분야별로 인권지향성·작품성·창의성·표현력·활용성 등을 심사해 인권챌린지 9팀, 카드뉴스 10팀, 이모티콘 12팀, 시 11팀 등 총 42팀을 수상팀으로 선정했다.

인권챌린지 대상은 '지켜줘, 우리 모두의 인권'(비룡초, 궤에진 외 16명), 카드뉴스 대상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고종호, 지평선교 교사)가 차지했다.

이모티콘 대상은 '비니토끼'(이연호, 정일초), 시 대상은 '인권 보물 찾기'(김서은, 고수초)가 선정됐다. 한편 이번 수상 작품들은 전북교육청



지난 14일 오후 2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4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층 현관 및 2층 강당에 전시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인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교

수들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발명교육 활성화 공로 '인정'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 '우수'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주관 평가서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가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에 대상으로 평가·시상하는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가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와 나윤희 과학교사(사진)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발명교육센터는 발명 교육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잡힌 발명 교육 확산에 공헌하고 있는 센터와 교사를 발굴해 시상한다.

올해는 지난해 센터 운영 실적, 발명교육 활성화 기여도, 발명교육에 대한 교원 전문성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8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 기관에는 발명교육센터 대상 상장(특허청장상)과 현안이 수여되고, 담당 교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2023년부터 김제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나윤희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상 다양한 발명 교육 프로그램과 발명 교육 교원 연구 활동, 미래기술 기반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전국 초중고발명골짓기만화공모전 대회 참가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나윤희 교사는 "김제 지역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발명 교육 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DX기반 에듀테크인문트 수업전략 특강

전주비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센터장 유승희)는 지난 14일 'DX기반 에듀테크인문트 수업전략'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교수학습개발센터 비전에 맞게 VR, Metaverse, AI를 활용한 수업 전략에 대해 하이플렉스(HyFlex)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이플렉스는 대면·비대면, 실시간·비실시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 참여 방법을 학습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가 대면 또는 ZOOM을 통한 비대면으로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실시간 참여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해 실시간 녹화된 영상을 전주비전대학교 메타버시티에 탑재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는 하이플렉스 운영을 위해 교수용 동작 추적 카메라, 학생용 음성추적 카메라, 강의 내용을 고화질로 녹화해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하는 강의 중계시스템 등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2024학년도 학생 모니터링위원회 개최

전주기전대학교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13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 모니터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 모니터링위원회는 재학생과 진로취업지원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유관부서가 진로·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참여 위원 및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함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침체돼 있는 취업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전주기전대 재학생을 비롯한 유관센터 교직원 22명이 참석한 이번 모니터링위원회에서는 △각 센터별 지원 사항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 △각 센터별 전년도 프로그램 환류 및 관련 사항 의견 수렴 △진로·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생 건의 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창의융합탐구실험 수업 적용 사례 공유

전북자치도교육청, 17~19일 지능형 과학실 구축 활용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7~19일 사물인터넷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4 지능형 과학실 구축 우수 사례 연수'를 진행한다.

지능형 과학실은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과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이다.

이는 지능형 과학실 ON 플랫폼과 연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생들의 과학 탐구와 융·복합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과학학습 공

간이다. 이번 연수는 미래형 과학교육을 위해 구축된 지능형 과학실 우수사례와 지능형 과학실 ON 활용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과학실 수업 컨설팅을 통해 과학실 탐구 수업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7일엔 전주근영중학교, 18일 여산초등학교, 19일 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에서 각각 진행된다. 사례 발표자로는 신혜정(전주근영중), 정한솔(용산초), 유효중(전일고), 이상진(전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 김소연(세종 금남초) 교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대, 시설 공간활용평가 '거점국립대 1위'

공간배분 구성원 만족감 제고, 공간 활용·관리 등 높이 평가

내년도 시설 확충 사업 예산안 인센티브, 교육여건 개선 '탄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국립대학 시설 공간활용평가'에서 9개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국립대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시작했다. 제도기반 구축(20점)과 공간 활용률(10점), 공간배정 현황(7점), 초과공간 관리실적(40점), 공간활용률 제고 노력(10점) 등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해 평가했다.

이에 전북대는 80.5점으로 전 항목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북대는 캠퍼스디자인실을 중심으로 공간 활용률 제고와 공간 배정기준 합리화를 통해 학과 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간비용체산제 적용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함으로써 실효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이날 연수는 직업계고 신규교사 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문교과별로는 건설(3명), 기계금속(12명), 상업정보(7명), 식품가공(4명), 전기(6명), 전자(7명), 화공(3명) 등이다.

주요 내용은 △직업교육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 △직업교육 정책의 이해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향 △2022 개정교육과정 및 직업계고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직업교육 우수사례 소개 등이다.

특히 박동규 전북하이테크 교사가 '직업계고 교사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특강도 펼쳤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예년에 비해 늘어난 신규교사들의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추후 전공 실기 능력 강화 연수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이를 위해 공간비용체산제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해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공간 배정 절차를 확립했다. 또 대학 시설·공간에 대한 자문기구인 '시설공간활용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학내 공간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왔다.

양오봉 총장은 "비효율적인 공간을 최소화하고 공간 배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들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기쁘다"며 "더욱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4일 열린 '2024년 직업계고 전문교과 신규교사 역량강화 연수'.

전문교과 신규교사들의 현장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직업교육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이었다"면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신규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는 지난 13일 문화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지식혁신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문제해결형 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혁신 활동 방향성 정립

전주대, '제1회 지식혁신 혁신 포럼' 개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는 지난 13일 문화산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회 지식혁신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오프라인은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됐으며, 온라인은 한국리빙랩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포럼은 '지식혁신 체제 구축 및 대학 혁신'이라는 주제로 지역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지·산·학이 협력하는 문제해결형 혁신 플랫폼 구축과 지역혁신 활동의 방향성 정립 및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한동승 교수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장)는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광역지자체 중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체계)'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학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혁신 방안으로 대학의 개방, 공유, 참여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핵심적인 과제 중 혁신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이해당사자 중심의 대학 리빙랩 프로젝트와 고등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식혁신 혁신 포럼'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출연(연), 시민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2024년 5월 발족했다. /장은성 기자

로컬비즈니스와 벤처생태계 살펴보기

전주대 로컬벤처학부, 민재욱 쇼슈아파트너스 대표 초청 특강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13일 자유관에서 로컬비즈니스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쇼슈아파트너스의 민재욱 대표를 초청해 '로컬비즈니스와 벤처생태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로컬벤처학부 재학생을 비롯해 주제에 관심 있는 타 학과 학생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로컬비즈니스 창업을 벤처생태계 측면에서 살펴봤다. 특히 관련 시장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엑셀러레이터의 시각에서 창업자들이 효과적인 경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설명했다.



김시열 학부장은 "로컬비즈니스 분야는 전문적 지식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라며 "이번 특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작용이 이뤄지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학생들의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